



東大新聞
發行人 李容寬
編輯 李容寬
印刷 李容寬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
서울시 중區 德津路 37번 2층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88년도 新入生 모집요강 확정

교무처 발표 2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

본교는 88년도 新入生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모집요강은 교무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민수석전〉과 서울제 및 학림제 등의 행사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대 및 교내 각 캠퍼스에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가자 압제의 폭압을 뚫고

총학 「학생주간」 설정, 각종 행사 개최해

총학 박성민은 28일(수) 오후 2시에 열린 교무처 회의에서 「학생주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설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학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학 박성민은 28일(수) 오후 2시에 열린 교무처 회의에서 「학생주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설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학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학 박성민은 28일(수) 오후 2시에 열린 교무처 회의에서 「학생주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설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학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58회 학생의날 기념식

기념식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축하하며, 학업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길 당부했다.
기념식은 교내 각 캠퍼스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축하하며, 학업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길 당부했다.
기념식은 교내 각 캠퍼스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본교는 88년도 新入生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모집요강은 교무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교는 88년도 新入生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모집요강은 교무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교는 88년도 新入生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모집요강은 교무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교는 88년도 新入生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모집요강은 교무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교는 88년도 新入生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모집요강은 교무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교는 88년도 新入生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모집요강은 교무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전기)
1. 모집구분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지원방법
4. 전형방법
5. 대학입학 학력고사
6. 전형일정
7. 기타

안보학 학술회의
「전환기의 統一理念」 주제로
총학 박성민은 28일(수) 오후 2시에 열린 교무처 회의에서 「학생주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설정할 것을 결정했다.

제58회 학생의날 기념식
기념식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축하하며, 학업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길 당부했다.
기념식은 교내 각 캠퍼스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치열한 문장가 정신 번뜩이는 소설가

한기영

한기영은 **『소설가』**로 문壇에 데뷔한 이래로 **『소설가』**를 통해 문壇에 이름을 알린 소설가이다. 그의 문장은 치열하고 정신 번뜩이는 문장가로서, 그의 소설은 문장가로서의 정신을 번뜩이게 하는 소설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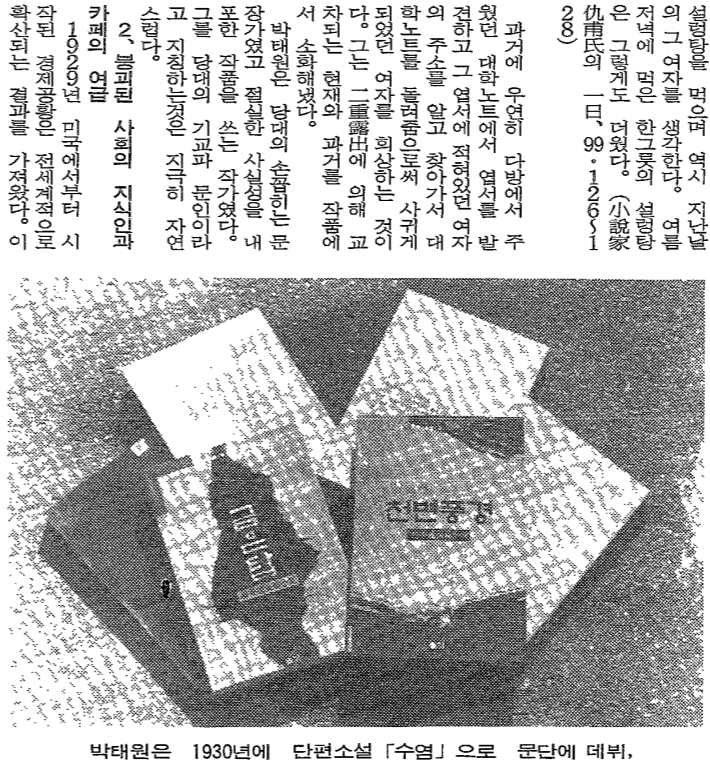
한기영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

한기영의 소설

한기영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그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한기영의 소설 『소설가』

한기영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그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한기영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그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10000호년보전기

각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주간) (02) 266-2666

대학명	학과명	학위	비고
1.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2.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3.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4.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5.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6.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한기영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그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한기영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그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10000호년보전기

각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주간) (02) 266-2666

대학명	학과명	학위	비고
1.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2.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3.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4.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5.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6.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경영학부	석사	11월 15일
	경영학부	박사	11월 15일

한기영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그의 소설은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표현적 기법에 문학적 관습을 고찰하는 노시공간에서 병리적 삶의 양식 표현을 다룬다.

『이어디건만 평등의 마음』

『이어디건만 평등의 마음』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평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저자는 '평등'이란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서로를 인정하는 데 있다. 이 책은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평등'은 '자유'와 '정의'를 전제로 하며, '평등' 없이는 '자유'와 '정의'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책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이어디건만 평등의 마음』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평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저자는 '평등'이란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서로를 인정하는 데 있다. 이 책은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평등'은 '자유'와 '정의'를 전제로 하며, '평등' 없이는 '자유'와 '정의'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책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이어디건만 평등의 마음』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평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저자는 '평등'이란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서로를 인정하는 데 있다. 이 책은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평등'은 '자유'와 '정의'를 전제로 하며, '평등' 없이는 '자유'와 '정의'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책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학문탐구와 현실참여는 불가분의 관계

학문탐구와 현실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학문은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며, 현실참여는 학문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길이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증진시키는 관계에 있다. 학문은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며, 현실참여는 학문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길이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증진시키는 관계에 있다.



사회 = 김승배 (本社원필)

師弟座談

『이어디건만 평등의 마음』을 쓴 김승배 선생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한 좌담회. 김승배 선생은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제자들은 김승배 선생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는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학생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역사속이 크게 호흡"

학생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역사속이 크게 호흡한다. 학생들은 사회의 미래를 건설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주체이다. 학생들은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학생들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학생들은 사회의 미래를 건설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주체이다.

泰昌企業株式會社
TAECHANG ENTERPRISE CO., LTD.

입을수록 자유롭고 활동적인
태창기업 캐주얼복지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주얼웨어의 80%가
황금기 버릴로 원단입니다.

코튼마크가 순면 100%의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캐주얼복지 '버릴로'는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튼마크는 버릴로 원단을 사용하여 만든 캐주얼복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버릴로 원단은 부드럽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며, 캐주얼복지에 적합합니다. 코튼마크는 버릴로 원단을 사용하여 만든 캐주얼복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창기업이 생산하는 원단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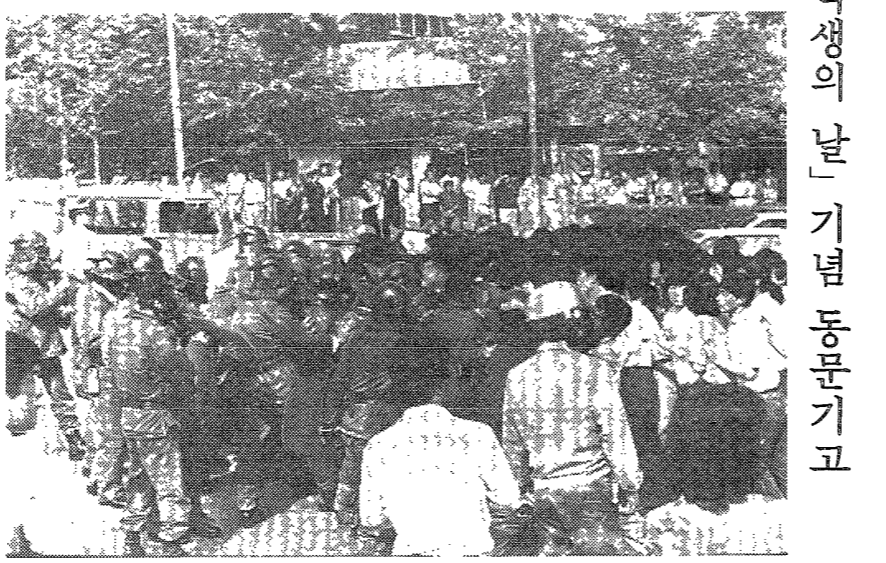
- DENIM/데님**: 1970년대 초부터 캐주얼복지 '버릴로'는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튼마크는 버릴로 원단을 사용하여 만든 캐주얼복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CORDUROY/골덴**: 1956년 당시가 국내최초로, 생선뼈와 그 줄기의 특수성과 직면한 것으로 세계 최초의 상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버릴로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VELVETEEN/우단**: 버릴로 원단을 사용하여 만든 캐주얼복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ESPUN/에스판**: 버릴로 원단을 사용하여 만든 캐주얼복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에서 열린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의하는 모임. (서울에서 열린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의하는 모임)

학생운동의 필요조건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하는 모임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임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3시간 동안 열렸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모임은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하는 첫 번째 모임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히 열릴 예정이다.



「학생의 날」 기념 동맹 기고 학생운동은 전체로서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이른바 「실천」의 위한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학생운동은 전체로서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이른바 「실천」의 위한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하는 모임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임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3시간 동안 열렸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모임은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하는 첫 번째 모임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히 열릴 예정이다.

우동주체 세력간의 연계 강화시급 자기진단으로 실천목표 앞당겨야

우동주체 세력간의 연계 강화시급 자기진단으로 실천목표 앞당겨야.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하는 모임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임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3시간 동안 열렸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모임은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하는 첫 번째 모임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히 열릴 예정이다.

3단계 학생운동의 흐름은 민족독립 → 독재정권 타도, 민주주의 확립 → 軍部종식, 독자적인 범민족적 역량 배양을 통한 자유화의 실현으로 파악할 수 있다

3단계 학생운동의 흐름은 민족독립 → 독재정권 타도, 민주주의 확립 → 軍部종식, 독자적인 범민족적 역량 배양을 통한 자유화의 실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흐름은 학생운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흐름은 학생운동의 필요조건을 논하는 첫 번째 모임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히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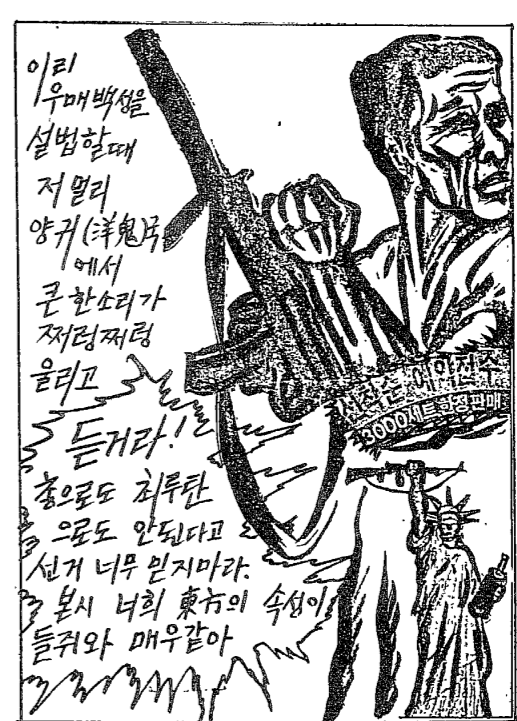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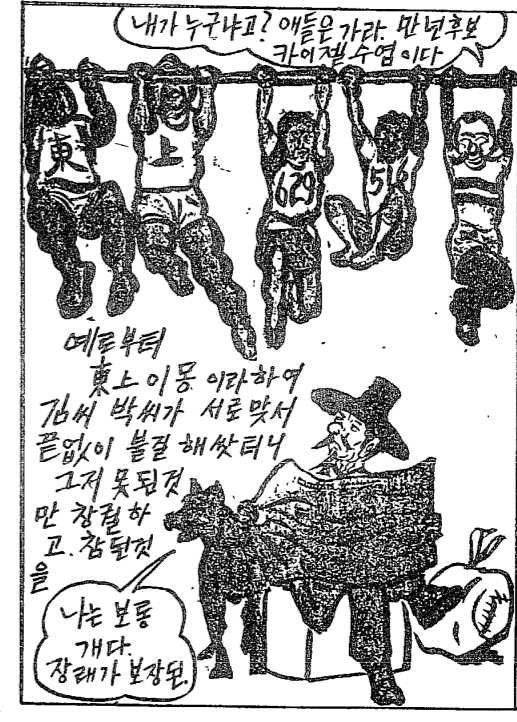
아오레화장품. 순한 화장품은 어떤 것일까요? 아오레화장품은 순한 화장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피부에 잘 스며들고, 그리고 함유된 성분까지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화장품에 쓰일 원료들을 추출해내려면 많은 연구인력과 수많은 단계의 연구·실험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순도높은 화장품 원료의 개발은 오랜 기간동안 쌓아올린 기술력과 경험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순도높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화장품 기술은 절단의 차이에 이르렀고, 그 기술력으로 우리 피부에 잘 맞는 "순도 높은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화장품정보로 "순한 화장품"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아오레화장품. 순한 화장품은 어떤 것일까요? 아오레화장품은 순한 화장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피부에 잘 스며들고, 그리고 함유된 성분까지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화장품에 쓰일 원료들을 추출해내려면 많은 연구인력과 수많은 단계의 연구·실험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순도높은 화장품 원료의 개발은 오랜 기간동안 쌓아올린 기술력과 경험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순도높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화장품 기술은 절단의 차이에 이르렀고, 그 기술력으로 우리 피부에 잘 맞는 "순도 높은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화장품정보로 "순한 화장품"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제58주년 학생의 날이다. 60년대이슬만...
 ○...독재력을 무너뜨린 4·19를 시발로 70년대...
 ○...유신독재에 끊임없이 항거하며 80년대 제5공...
 ○...좌익이 들어선 이래의 슬한 탄압속에서도 우...
 ○...리 학생운동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끊임없는...
 ○...발전하여 이제 학생들은 민중들의 편에 있...
 ○...음을 명백히 했고 이는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과제앞에 민족민주운동에로의 거부...
 ○...를 내딛고 있다. 헌법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진정한 민중들의 생계와 삶...
 ○...을보장해 줄 국민의 대표자가 없다는 인식은오...
 ○...히려 보편화돼 "어쩔수없이 찍어준다"라는 말...
 ○...이나오듯 현재에 있어서의 대통령선거에대한...
 ○...만포한 고조되고있는 것이 사실인듯 하다. 이...
 ○...에 본지는 만화를 통해 이를 풍자해보고 앞...
 ○...으로의 학생운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다스릴...
 ○...생각해 보고자한다. <편집자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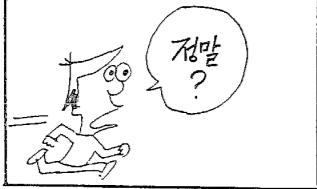
학생의날 특집 기념 만화

大 政 治 繪 卷 圖



여로니

오 할 <48>



한국 현대사의 색채의식 연구

채수영 著

이 책은 작가가 색채가 마음을 상징하고 색채로서 생활감을 나타낸다는 상관성에서 색과 색채의 정서적 함의에서, 한문·이문·서예의 정서에서 색채 이미지를 추출하여 그들의 성격과 시대의 색깔을 조망하고 있다.

<집문당판·228면·4천 5백원>

희망의 길

유도원·양창집 共譯

폴란드의 노조운동지도자 데오바렌사가 쓴 자서전으로 올해의 <정치문화적 사건>으로 평가받았으며 그의 개인문서들과 증거기록들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편지나 인터뷰기록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작가의 어린시절부터 시작 계엄령선포체포까지의 생애를 다룬다.

<희생출판사·292면·3천 원>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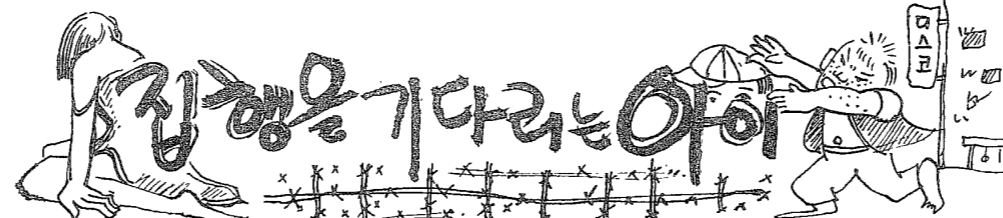
김남일 著

모스크바 귀족출신인 라지시체프의 <베르스부르크로부터 모스크바까지의 여행기>인 이 책은 작가가 스물 네개의 여인숙 명칭을 각자의 첫머리에 단기행, 정음, 배설하여 한때 유명했던 그가 34세 되던 겨울 푸가세프 반란이 일어날 무렵 떠났던 것이다.

<학민사·288면·3천 2백원>

청소년으로 비행은 자질라 법의 집행을 기다리는 아이를 법정용어로 「보호 소년」이라 부르고 있다. 이 용어는 범죄 소년·문제아·불량소년·비행소년 등의 호칭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듣기 좋은 느낌이고 글자 그대로 법의 보호를 받고, 부모와 학교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사회와 나라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에게 더욱 마땅한 표현이라는 느낌이 든다. 가정법원이나 소년(少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골잡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문제소년의 바로 뒤에는 문제의 친구가 있고, 그 바로 뒤에는 문제의 부모와 가족이 있으며, 그 바로 뒤에는 문제의 사회(환경)가 반드시 있다.』고.

그러나 작게든 크게든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소년의 배후에는 반드시 문제 내지는 주범을 해낸 친구가 있었고, 온전 못한 부모와 가족이 있으며, 그 뒤에 불안정한 사회가 어떤 환경 버리고 서 있는 셈이라는 말이다. 며칠 전 소년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총칭할 때 수감되어 있는(刑罰)을 살고 있는 소년(刑罰) 수감자가 약 3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은 미성년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회에서 방치되어 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아이

기판의 보호관찰중인 소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소년과 소년 감별소에 보호내지 위탁교육 중인 청소년들을 제외한 刑罰부 중인 소년 소녀들의 숫자라는 점에 촛점을 맞추어(이웃나라 타본은 소년원은 물론 형무소마저 수감자가 없어 흰깃발(白旗)을 내거는 날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비행과 우리의 후배, 우리들의 앞날인, 그들의 장래에 모든 어른들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과 젊은이는 그 나라의 기둥이며 미래의 열매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푸른세레·내일의 영웅들이 오늘의 중학생들과 그들의 임장과 현실, 입사와 교과과정을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재삼 긍정하게 된다.

1982년 문교부는 두발(頭髮) 자유화를 실시했고 이어서 83년에는 교복(敎服) 자유화를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찬반론을 주장했지만 오늘에 와서 보면 크게 나누어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 청소년의 배후에는 문제 가정과 불안정한 사회가 반드시 있음을 직시하자

최근 학교 규율과 교훈을 강조하며 교복과 두발, 언행과 교행에 역점을두고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학생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학교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교의 청소년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이 조사 및 설문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일에 가정은 어려움과 해결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부분

격한 학교 규율과 교훈을 강조하며 교복과 두발, 언행과 교행에 역점을두고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학생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학교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교의 청소년들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이 조사 및 설문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일에 가정은 어려움과 해결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부분

제24회 소설문학 시부문 신인상 수상자를 만나

『늘 혼자서 외치다 절망하고, 아픈 걸음마음으로 남아서 처절히 고백하고 싸우고 다짐는 기술자이고 산수이다』라며 등단소감을 밝히는 백규홍(인문대·국

이 바로 상담실 담임교사들 일 것이다. 여기 참고로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년 학교 환경조사의 일면을 인용해보면 무화(불취학)에서 대일(재수생)까지의 성분증명률(유가장높은) 1천 4백88명이 증명률(유가장높은) 9백41명의 학교증명률 나타나 있으며, 1981년에 4천77명의 보호소년이 82년에 4천 5백60명으로 83년에 4천 5백23명, 84년 4천 9백30명, 85년 4천 8백56명, 86년 5천 61명으로 1981년 이후 즉 두발 및 교복자유화가 실시된 뒤 보호소년의 숫자는 1982년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서울 소년 감별소 통계> : <여성포럼>

는대로 분파라 하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는 모든 행동을 주의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누가 무얼 먹든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금방 먹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었다고 나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들의 호기심·습성·단순함 등의 표본이고 대상이 되는 것이 어른들에게 한층 더 청소년들 앞에서는 배움과 도움이 되는 언행을 일삼으라는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이기도한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각 학교별로 머리모습과 교복의 색깔, 모포와 벗지 등을 즐기려고 다양하게 결정해서 학교의 전통과 개성을 살리고,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맞도록 어울리는 머리와 옷과 양을 창출함으로써 이 나라의 정래의 범죄 유형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의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는 모두 나라의 장래와 교육의 백년대계를 깊이 생각하는 거국적 움직임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속담에 『아이들 보는 데서 잔뜩도 못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어린이들은 어른이 할

백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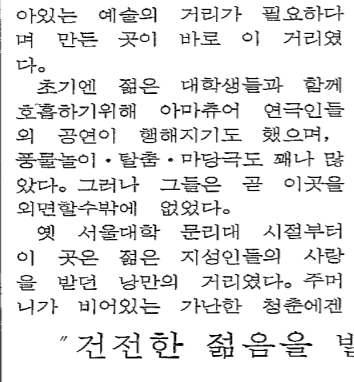
『문학을 글이 순수하다고 현실참여론이라는 틀 안에서 현실참여를 제시한다면 주체적 생활철학 속에서 현실과 접목된 현실참여문학을 하고 싶다』고 자신의 시인행성을 밝히면서 <모르나 또 한 가장 힘드거라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당파와 직결된 작품이 나올것 같다』고 조신준에게 소신을 밝히는 그에게서 벽을 쌓고 싶어하는 나뭇대로서 고집과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열정을 느낀다. 학생이면서 작가라는 위치에 있어 어떤 기분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 좀 더 발전된 모습이어야 하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창조적인 자기세계를 추구해야』라고 답하는 모습에서 매일 매일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는 시인의 모습을 엿볼수있다.

희청이는 10대들의 거리

『글쎄요! 거 몇년후에 대학에 갈 학생들이 노는 거리라 대학로란 이름이 붙은거 아니에요』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대학로는 혜화동 터미널에서 이화동터미널까지 1.1km의 거리를 말한다. 왜 이 거리에 대학로란 이름이 붙여야했는지 이 책이 대답

은 이들은 행정당국의 기만적 술책에 분노하며 이 거리를 떠났고 오히려 꿈과 희망이 가득한 10대들의 순수한 이상이 옹호되고 있었다. 차량통제가 시작되는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 일요일날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이 거리는 10대들의 어두운 거리가 돼버린다. 아르바이트로 어느 카페에서 기판을 친다는 일성권은 『해지기전까지는 관중을 대상으로 노래연습도 할수있어 좋은데 발판이 너무 소란스러워 자신의 기타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며 날이 갈수록 열려서온 곳으로 변해가는 대학로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호소했다.

낮에는 그런대로 밝고 싱그러운 모습이다. 은행일이 무성한 모습에 공원처럼 앉아 친구를 기다리는 여학생, 등교를 마



소풍객들이 기탄없이 노래하는 교묘한 '물리산정' (지난 11일)

이들은 행정당국의 기만적 술책에 분노하며 이 거리를 떠났고 오히려 꿈과 희망이 가득한 10대들의 순수한 이상이 옹호되고 있었다. 차량통제가 시작되는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 일요일날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이 거리는 10대들의 어두운 거리가 돼버린다. 아르바이트로 어느 카페에서 기판을 친다는 일성권은 『해지기전까지는 관중을 대상으로 노래연습도 할수있어 좋은데 발판이 너무 소란스러워 자신의 기타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며 날이 갈수록 열려서온 곳으로 변해가는 대학로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호소했다.

낮에는 그런대로 밝고 싱그러운 모습이다. 은행일이 무성한 모습에 공원처럼 앉아 친구를 기다리는 여학생, 등교를 마

거늘수없는 낙엽진 공원이 있었고 예술을 감추는 감성인을 위한 어둠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 의해서 이러한 작은 공간의 각색이 시도되었다. 김관중의 불에 분노하며 무정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을 한곳에 몰아넣기 위한 퇴짜·향락의 거리를 그들은 구상해 낸 것이다. 또한 그들은 대학생들이 집권층의 비리에 분노하지 말고 이곳에서 향락적 삶의 기본요건을 익히고 즐기기를 바랬으나 젊

주어야 성가를 부르는 합창단, 소극장의 연극포토 사기위해 출근 시에는 검은이들 펄펄, 모두가 한가로운을 즐기는 호숫가 모습이다. 그러나 해가 지면서 대학로 풍경은 밤의 무질서를 예고하기 시작한다. 서늘해 낮과를 들들떨이던 아스팔트위는 술을 마시기 위해 앉아있는 학생들로 발디뎠도 없으며 이들의 취기가 도는 7시 이후의 이 거리는 고성방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현

리들의 힘터를 위해 행정당국은 과연 무얼했는지 궁금해하는 이가 본기자만은 아닐것이다. 이 모든 책임을 문화와 사색의 거리를 빼앗아 향락과 무질서의 거리가 되도록 방관한대는 행정당국과 그 사실을 알고도 그런 반대를 위한 대학생의 거리는 이런 퇴짜·사색의 거리가 아니라 기존의 대학문화와 수렴, 새로운 대학문화의 장광할수 있는 공명장이어야 할 것이다. <글 현영호·사진 김용 記者>

大學路가 예고하는 밝은 향락과무질서가 난무하는 現場

거늘수없는 낙엽진 공원이 있었고 예술을 감추는 감성인을 위한 어둠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 의해서 이러한 작은 공간의 각색이 시도되었다. 김관중의 불에 분노하며 무정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을 한곳에 몰아넣기 위한 퇴짜·향락의 거리를 그들은 구상해 낸 것이다. 또한 그들은 대학생들이 집권층의 비리에 분노하지 말고 이곳에서 향락적 삶의 기본요건을 익히고 즐기기를 바랬으나 젊

21세기를 향한 창조와 도전의 세계

대우테크놀로지

21세기를 향한 창조와 도전의 세계, 대우테크놀로지— 대우테크놀로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대우인의 의지와 집념으로 펼쳐나가는 새로운 첨단기술의 세계입니다. 정보화시대를 여는 뉴미디어기술은 물론 로봇, 레이저, 산소제, 생명공학 등 첨단복합기술이 하나로 결합되어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대우테크놀로지— 대우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로봇산업**
국내최초로 다목적 산업용 로봇 NOVA 10을 자체개발한 대우는 고도의 이동 및 센싱기능, 저음을 갖춘 다양한 로봇의 연구개발을 통해 인간의 힘든 일을 대신하는 로봇 시대의 자동화기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 산소제산업**
공의 소재인 산소 함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는 대우는 정밀 미세 산입의 산소 소재인 연가제인 폴리머, 세라믹, 바이오 소재들을 현실화시켜 산소제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통신산업**
대우는 MODEL D 컴퓨터 수송, TDX-1 전자회로기 수송, 광통신 실용화, 주문형 반도체생산 등 통신분야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고도종합 정보통신망 ISDN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 전자산업**
대우는 세계 세번째로 최첨단방식 디지털 컬러 TV의 개발 등 뉴미디어를 개발하여 가정자동차 (HA)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인간생활을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